

목포 청년에 산업용 AI·로봇 교육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 선정 '청년스마트도시' 육성 2027년까지 국비 30억 투입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구축

목포시가 스마트 청년 도시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은 디지털 융합훈련 시설과 장비를 구축·공유하고 지역 내 주력산업과 연계해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융합훈련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30억원을 확보, 오는 2027년까지 옛 청호중학교에 스마트인재교

육센터를 구축한다.

시는 그동안 스마트인재개발원,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와 함께 ▲목포시에 최적화된 스마트 정책과 사업 모델 연구 지원 ▲사업 발굴과 중앙정부 사업 유치 ▲목포시 학생·청년을 위한 학습·취업·창업·역량강화 지원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과 지원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힘써왔다.

앞으로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지역 내 학생, 청년, 미취업자 등을 위한 스마트인재교육센터를 구 청호중학교에 구축하고 인공지능·로봇

관련 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산업현장의 환경과 동일하게 구현한 메타버스 체험공간에서 가상 업무 체험을 진행하고, 이를 현장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시비를 들여 청년층의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4차산업에 최적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스마트도시 목포의 시발점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전남 랜드마크로”

전문가 세미나...장보고 계승 전시·관광 콘텐츠 개발 등 논의

완도에 들어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의 건립 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완도군은 지난 17일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국내 박물관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백승욱 전문위원은 '장보고 대사의 역사성 재조명 등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의 운영 방향과 전략'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왕 장보고 대사는 글로벌한 안목의 소유자이며 세계적 반열의 인물로 그가 가진 소프트 파워적 리더십이 인심을 움직이게 했다"며

"박물관에 장보고의 역사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세계적인 해양박물관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이형기 학예연구관은 '국내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 전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국내외의 수산 관련 문화를 전파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박물관학회 윤태석 이사장의 '최근 박물관 동향과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방향',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 학예연구사의 '수산업 발전을 통해 살펴보는 국립해양수산물관 전시 콘텐츠'라는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운영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에서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다양한 체험시설 구성, 수산자원의 소비·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완도군이 선정됐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오는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선정, 2024년 3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완도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완도가 해양수산 대표도시로 거듭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며 "중앙부처, 전남도 등과 협력해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설립 타당성 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이 국도 77호선을 따라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가리포 노을길을 조성한다. 완도 가리포 노을길 조감도.

완도 '가리포 노을길' 내년엔 달린다

국도 77호선 6km 구간 하반기 공사 착수...내년 완공 목표

완도군이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가리포 노을길을 조성한다.

가리포 노을길이 조성될 완도읍 대신리에서 군외면 대문리까지 국도 77호선은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해안 경관이 뛰어나며 일몰이 장관이어서 드라이브하기에 좋다.

군은 국비 40억원을 투입, 6km 구간에 노을길을 조성한다.

가리포 노을길은 완도의 주요 관광지인 소세포 세트장과 국립대수목원으로 조성될 완도수목원을 연계한다.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포토존

과 쉼터, 경치 좋은 곳에 경관 전망대와 조형물 등도 설치한다.

오는 3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설 공사에 들어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국도 77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미소공원, 갯바람공원, 일몰공원 등 3개의 공원이 조성돼 있다.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8km(15분 소요)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고 여행객들이 탁 트인 바다·노을 등을 바라보며 힐링하기에 좋다.

군은 노을길 조성으로 공간 복원, 관광객 유입, 지역 활력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 농업인 가사 부담 완화 56개 마을 농번기 공동 급식

진도군이 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 농번기 영농에 집중,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마을 공동 급식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사업 대상 마을은 급식 종사자와 공동 급식 시설을 갖춘 56개 마을로, 지원금액은 마을당 최대 350만원이다.

4~11월 운영되는 이 사업은 농번기에 도시락과 반찬 배달,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

군은 일손이 부족한 바쁜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이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절약해 농사에 집중할 수 있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치매 가정 119생활안전순찰대가 갑니다

목포소방서, 가스밸브 타이머·미끄럼 방지 장치 등 안전 점검

목포소방서가 목포시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치매 가정을 방문, 화재예방과 더불어 집안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치매 가정에 방문해 조리용 가스밸브 타이머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사진), 문어발식 콘센트 점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가정 내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혈압 당뇨 측정 등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치매어르신 면담을 통해 질병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인 119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한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치매가정은 화재 및 가정 내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계층이다"며 "안전사고지대에 놓인 치매 가정에 대해 중점적인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군, 생분해성 멀칭비닐 사용 확대

노동력 절감·상품성 높아...내년부터 전면 지원키로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2024년부터 농업용 일반 멀칭비닐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비닐 사용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신안군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수, 군의원,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대책 토론회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일부 면적에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사용에 대한 분석결과 폐비닐 수거의 노력이 절감되고 농작물 수량과 품질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에 따라 농작물의 수확 후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옥수수 짚산, 셀룰로스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소재로 생산된 친환경 농자재이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일반비닐은 분해가 장기간 걸리고 토양 속에 잔류하면서 환경 호르몬과 미세플라스틱 등 토양환경 오염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에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며 잡초 발생억제제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양분 유실감소로 비료 사용량 절감과 함께 농작물 생육 및 상품성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분해성 멀칭비닐 자연적으로 분해돼 토양 오염 방지는 물론 상품성가치와 갈수록 치솟고 있는 높은 임금시대에 노동력도 대폭 줄일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그동안 사용해 오던 기존 비닐 가격 대비 3배 이상 비싸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반 비닐을 사용해 오던 농가들의 인식 부족의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신안군은 올해 보조비율을 70%-80%로 대폭 상향하여 총 600ha 면적에 우선 확대 보급하고 농가와 토양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등 준비 기간을 갖기로 하고 TF팀을 구성해 후속 절차 추진에 매진할 방침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영광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최근 19대 회장 취임식과 20대 회장 취임식을 함께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영광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이·취임식'에는 역대 여성단체협의회장과 강중만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장과 군의원, 회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19대 강희 회장은 "지난 2년간 재임 기간 코로나로 힘들었던 여건 속에서도 당당하고 부지런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이임 소감을 밝혔다.

20대 회장 임기를 시작한 나온주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 여성단체협의회에는 농가주부 영광군연합회 등 10개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영광=이중수 기자 jyilee@kwangju.co.kr